

‘110조 세금 도둑’ 소탕…국세청 세금 체납 엄정 대응

TF 가동 체납 전수조사 시동…국세청, 국세징수법 개정안 마련
국세 체납관리단 신설…납부 의사·계획 등 확인 후 체납자 분류

국세청이 ‘세금 도둑’ 척결에 집중한다. 국세청은 일단 110조원에 이르는 체납액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태스크포스(TF) 가동 등에 나설 예정이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 확인 종사자’가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 또는 방문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체납자는 반드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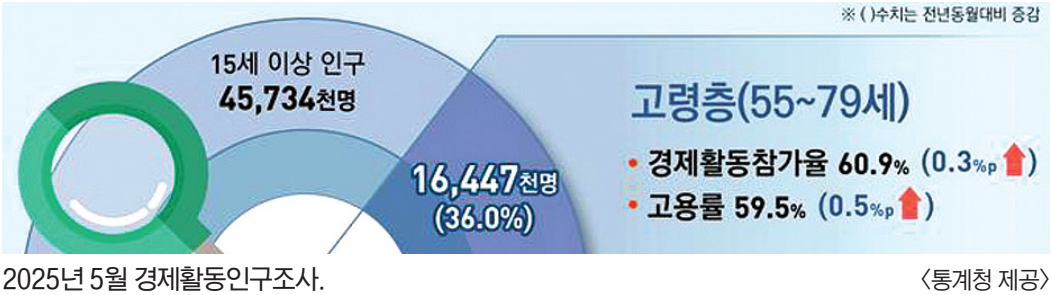
시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과세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 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광현 국세청장 역시 최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 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9000억원이었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5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1000억원, 지난해 110조7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55세 이상 경제활동 고령층 ‘1000만 시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59.5%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우리나라의 5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60세 정년’이 무색해질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상화되고 있는 셈이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79세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10만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2만 8000명 늘었다. 전체 고령층 인구는 1644만 7000명으로 15세 이상 인구(4573만 4000명)의 36.0%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여줬다.

고령층 고용률은 59.5%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60.9%로 0.3%p 높아졌다. 특히 55~64세 고용률은 71.1%로 지난해보다 0.6%p 올랐고, 65~79세는 47.2%로 0.9%p 높아졌다.

고령층 중 현재 취업자는 978만명으로 전년보다 34만 4000명 증가했다. 미취업자 가운데 생애 한 번이라도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627만명, 아

예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은 39만 8000명으로 조사됐다.

고령층의 오래된 일자리에서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6개월로 나타났으며 아직도 해당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비율은 30.1%에 달했다. 이들의 현재 평균 연령은 62.6세였다.

장래에도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 비율은 69.4%로 전년 동월과 동일했다. 희망 근로 나이는 평균 73.4세로 집계돼 ‘60세 정년’ 후에도 일을 하고자 하는 고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은 일자리 선택 기준으로 남녀 모두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희망 임금 수준은 남성 ‘300만원 이상’, 여성 ‘100만~150만원 미만’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령층의 지난 1년간 연금 수령률은 51.7%(850만 2000명)로 집계됐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86만원이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에어컨 전원, 벽면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세요”

삼성전자서비스, 올바른 에어컨 자가 점검 방법 소개

삼성전자서비스가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에어컨 자가 점검 방법을 소개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6일 삼성전자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7월 에어컨 서비스 신청은 전달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신청 사례 중 약 30%는 제품 고장이 아닌 경우로, 올바른 자가 점검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초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서비스의 설명이다.

먼저 냉방 가동 후 송풍 모드를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동작시키면 내부 습기가 건조돼 냄새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 청소’나 ‘스마트 냉방 세척’ 기능이 탑재된 모델은 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에어컨 주변의 방향제, 디퓨저 등은 제거하는 게 좋다.

필터 관리도 필수다. 거름 필터는 2주에 한 번 흐르는 물로 세척하고, 전기 집진 필터는 3개월에 한 번 중성세제를 푼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행군 뒤 그늘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건조해 사용한다. 탈취 필터는 2~3개월 주기로 교체한다.

냉방을 가동해도 실내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

면 실외기 전원 코드 연결 여부와 주변 통풍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실외기실 창문이 닫혀 있거나 적체물이 공기 순환을 방해하면 실외기에 과부하가 걸려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

또 실내기 바람 날개(블레이드) 방향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지, 제품 뒤편의 바람 흡입구가 커튼 등으로 막혀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에어컨 전원은 반드시 벽면 콘센트에 단독으로 연결해야 한다. 멀티탭으로 다른 기기와 병행 연결하거나, 전원 코드를 연장한 경우 과부하 발생과 화재의 원인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98.14	(+0.14)	
▲ 코스닥	803.49	(+4.89)	
▲ 금리(국고채 3년)	2.430	(+0.005)	
▲ 환율(US D)	1390.65	(+2.35)	(오후 4시 48분 기준)



“천연 벌꿀 맛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조선양봉’ 팝업스토어에서 직원들이 꿀을 소개하고 있다. 야생화, 율마루, 벌 꿀 등 다양한 종류의 꿀과 소용량 선물세트, 실속 선물세트, 고급 선물세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10월 말 조선양봉 팝업스토어는 오픈 기념으로 오는 17일까지 전제품 2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정부 “美 농산물 추가 개방 없어…FTA 효과도 살아있다”

구윤철 “자동차 관세 12.5% 관철 못해 송구…관련 대책 마련”

정부가 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미국 농산물 추가 개방 우려에 대해 ‘추가 개방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국 과채류 등 농산물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 ‘관세 협상을 통해 추가적으로 개방한 것은 진자 없다’며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수입 절차가 8단계인데 미국

에서 시간이 걸려서 너무 느리다는 얘기가 있었다”라며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통관 시간을 줄이려면) 감염병·전염병과 같은 정보가 빨리 들어와야 하므로 인공지능(AI)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더 (시장 개방을) 늘리겠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한미 FTA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며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에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데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피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기아 오토랜드광주, 청소년 진로 설계 돕는다

꿈 설계 프로그램 진행
직업 체험·미래차 교육 등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광주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꿈 설계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프로그램을 마련해 자동차공장 견학, 미래 자동차 체험, 1대1 진로 컨설팅·진로 탐색 직업 체험 등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해 선정된 지역 청소년 65명이 참여했다.

35명의 초등학교생이 참여한 지난 5일 1차 프로그램에는 기아 오토랜드광주의 자동차 생산 라인을 견학하고 미래 자동차 체험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직업 체험에서는 방승 콘텐츠 기획자, 의료인 체험으로 직업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중고등학교생 30명이 참여해 진행된 2차 프로그램에서는 진로 탐색 기회가 제공됐다. 학생들은 기아 오토랜드광주 1공장을 견학하고 미래 자동차 모형을 조립해 경주하며 미래 자동차의 변화를 체험했다.



박치용(왼쪽) 기아 오토랜드광주 1공장장이 6일 열린 청소년 꿈 설계 프로그램 후원금 전달식에서 변정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광주 제공〉

기아 광주교육센터에서 진행된 진로 탐색 프로그램에서는 전문 진로 상담사와의 1대1 상담으로 학생들의 호응을 얻었다.

앞서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이번 꿈 설계 프로그램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본부에 650만원을 전달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관계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고 청소년들이 넓은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Z세대, 가치 소비에 진심…10명 중 6명 “비싸도 착한기업 제품 산다”

대한상의, ESG 경영과 소비트렌드 조사… ‘미닝아웃’ 확산

개인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미닝아웃’(Meaning Out·가치소비)이 Z세대(1997년 이후 출생)의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만 17~28세(Z세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SG 경영과 소비트렌드 인식 조사’ 결과, Z세대는 기업의 ESG 활동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거나 중단하는 등 가치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적극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중 66.9%는 ‘조금 비싸더라도 ESG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 기업의 ESG 실천이 브랜드 선택과 제품구매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기업 제품은 ‘보이콧’하는 단호한 모습도 보였다. Z세대 10명 중 6명 이상은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나 ESG 관련 부정적 이슈로 구매를 중단한 경험이 있다’(63.7%)고 답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의 배경에는 Z세대만의 소비가치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이다. 이들이 선택한 소비 키워드는 절약을 중시하는 ‘짤테크’(32.9%), 자신의 신념을 소비로 증명하는 ‘미닝아웃’(26.5%), ‘아보하’(23.3%) 등이었다.

아보하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줄임말로 평범

한 일상에서 소소한 만족과 행복을 찾는 라이프스타일 및 소비를 뜻한다.

Z세대들은 기업 ESG 활동의 진정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65.4%는 우려를 나타냈다.

ESG 활동을 진정성 없이 단순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업은 청년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업의 ESG 경영 여부도 청년층의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절반 이상(54.2%)은 ‘취업이나 이직 시, 지원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확인하거나 입사 여부 결정 시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